

### 보문사 일주일간의 법석

무학대사가 사자암을 세우고 선종을 떨쳤던 서울 상도동 국사봉. 지금은 하늘과 맞닿아 있을 정도로 높아 '하늘 마을'이라 불리는 달동네가 들어서 있지만 이곳에는 선방 수좌들에게 민행처로 유명한 조그마한 사찰이 있다. 일반 가옥을 개조한 보문사가 바로 그 도량. 선방에서 입승 소임만 10년 넘게 살았던 선객 지법 스님이 은사정진 스님의 유훈을 받들어 일반선원처럼 엄격한 규율을 지키고 있다.

3월 21일부터 일주일간 이곳 보문사에는 특별한 참선법회가 열렸다. 우리 시대의 선자식으로 널리 존경받고 있는 고우 각화사태백선원장, 일오 월명암 사성선원장, 현산 화엄사선등선원장, 해국 제주 남국선원장, 무어 축서사 주지, 대원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혜정 법주사 총지선원 회주 스님이 매일 법석을 펼친 것이다. 특히 수좌스님 10여명이 매일 법석에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 “스님 법문 경책삼아 더욱 정진할래요”

3월 21일 첫 번째 법사로 등단한 고우 스님은 오오이 공한 이치가 바로 연기라며 올바른 수행법에 대한 법문을 시작했다. 사부대중 500여명이 도량을 가득 메워 선 수행의 열기가 하늘을 치솟았다.

“최근 명상, 단전호흡 등이 유행하는데 그것이 불교의 수행법과 무엇이 다른지?” (강사자철 보살)

“단전호흡은 호흡에 집착하기에 올바른 수행법이 아닙니다. 다만 들어주고 내주는 호흡을 관하고 있다면 그것은 호흡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기에 참선 수행과 같은 성성적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기에 바른 수행법이라 하겠습니다” (고우 스님)

이날 법회에서는 수행에 관한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그때마다 고우 스님은 선 어록과 자신의 수행 경험을 예로 들며 질문자의 근기에 맞는 대가설법을 해 수행에 목말라 하는 중생의 갈증을 풀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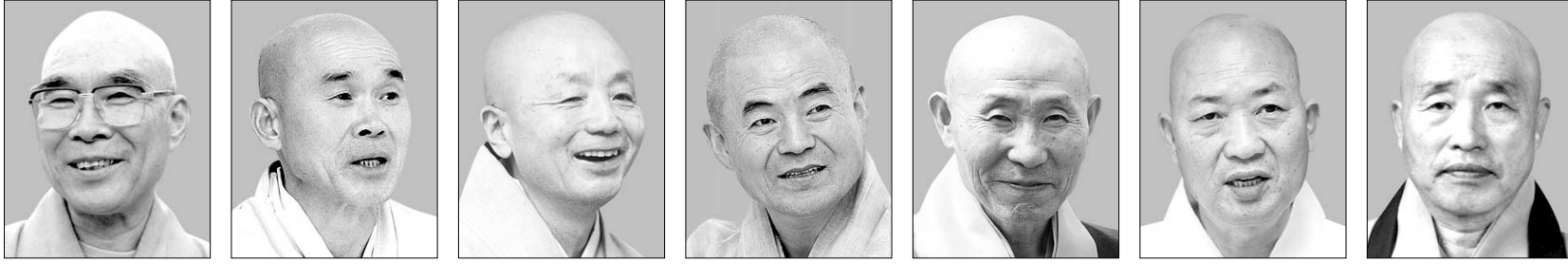
### 전국서 매일 500여명 동참

평생 선방에서 수행에만 전념해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일오 스님이 법석을 펼친 둘째날인 22일 일오 스님의 법문만 장장 2시간 30분동안 이어졌지만 법회 동참자들은 마치 삼매에 든 수행자처럼 미동도 없이 스님의 법문을 경청했다.

가족을 만나기 위해 잠시 귀국해 법회에 참석한 김보장화(67·미국 뉴욕 거주) 보살은 “짧은이들도 2시간 넘게 앉아 있으면 다리가 저린데 60이 넘는 노장이 허리 한 번 안 굽히고 법문 하는 모습에 탄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날 일오 스님은 자신이 참선 수행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은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화두가 가장 잘 잡히는 그 순간이 현재심을 가장 잘 다스리는 상태입니다. 현재심에 집중하게 되면 과거심은 이미 지나갔고 미래심은 아직 오지 않았기에 그때 지혜가 열립니다. 현재심이 새롭게 살아서 움직이는 법이 화두법으로서 수행법 가운데 가장 수승합니다.”라며 선기를 드러내 보였다.

23일 세 번째 법사로 초청된 화엄사 선등선원장 현산 스님은 특유의 계승을 읊으며 청중을 사로잡았다. 현산 스님은 “중국의 방기사는 오직 있는 것을 비우려고 해



고우 스님 일오 스님 현산 스님 해국 스님 무어 스님 대원 스님 혜정 스님



“법문 듣는 이 순간이 현재심을 잘 다스리는 상태입니다.” 일오스님의 법문에 이목을 집중하는 수행자들. 사진=고영배 기자

아직 비운 것을 채우지 말라고 했다”며 “살아가면서 현상에 허망함을 느낀다면 비우고 살라”는 내용의 생활 법문을 했다. 설법이 끝나자 한 보살이 스님의 계승이 너무 좋다며 제일 좋아하는 계승을 하나 부탁하자 스님이 즉석에서 가장 좋아하는 경구를 엄설로 표현해 박수 갈채를 받았다.

24일 제주 남국선원장 해국 스님은 네번째 법사로 법석에 올라 “우리 참 주인공, 참나를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했습니까?”라며 사부대중을 경책한 뒤 마음 다스리는 법에 대해 법문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인공과 자문자답을 하세요. 그리고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 아침에 가졌던 마음가짐을 점검하고 못다한 것이 있다면 ‘내일 또 정진하겠습니다’라고 마음을 잡으세요. 이 시간이 바로 내 마음의 입장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 수좌들도 지대한 관심

법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불자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웃음이 가득했고 발걸음은 가벼워 보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법회의 열기는 더해갔다. 동참 사부대중이 지속해 늘었고 해제철이라 만행을 하고 있는 선방 수좌들도 매 법회마다 10여명씩 동참해 큰 스님의 가르침을 받았다. 세간과 출세간의 경계를 허문 선사의 주장사 소리는 국사봉을 메아리쳤다.

25일 다섯번째 법사로 초청된 무어 스님은 수행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지혜가 생기고 의지가 강해지고 성품이 변해 궁극적으로는 생사해탈 할 수 있다며 발원하지

말고 열심히 수행정진하라는 당부했다.

평소 법문을 듣기 힘든 스님들이 이렇게 도심에 나와 법문을 한다기에 한숨에 달려왔다는 이원력행(68·경북 울진) 보살은 “간절한 마음으로 수행에 매진하라는 스님의 법문이 하나의 화두가 되어 마음속에 맴돈다”며 “먼길을 달려와 가족들과 떨어져 있지만 무한한 행복을 느낀다”고 말했다.

다음날인 26일 법상에 오른 대원 스님은 주장을 들어 보이며 중생이 원래 부처임을 일깨워 주었다. 보살계 수계법회와 함께 열린 3월27일 회향법회에서 혜정 스님도 계·정·혜 3학을 바탕으로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대중설법을 했다.

일주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법회에 참석한 임자성화(57·충남 예천) 보살은 “수행을 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큰 스님들을 찾아 다녔지만 그 모두가 나의 아상이었다”며 “선사의 법문이 경책이 되어 보다 수행에 정진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기뻐했다.

### ‘자신 다스리는 법’ 배워

조실·선원장급 선사를 초청해 펼쳐졌던 7일간의 야단법석. 전국의 운수남자 수천명이 모여 수행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3월 27일 ‘선사 7인 초청대법회’는 회향을 했지만 산문을 나온 선사들의 대중법문은 마치 오아시스에서 마신 물처럼 수행자들에게 생명수와 같이 그 해갈의 기쁨을 남겼다.

보문사 주지 지법 스님은 “전국 선방을 일일이 찾아가 수좌들에게 어떤 스님이 큰 스님이며 직접 추천을 받아 7분의 큰스님을 모시게 됐다”며 “이번 법회는 선사와의 만남으로 미혹을 버리고 깨달음으로 가는 아름다운 길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buddhapia.com

### 이모저모

#### 해제한 수좌들 매일 참석

○...법회 기간 내내 10여명의 선방 수좌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평소 일반인들과 접촉이 없던 수좌 스님들이 대중과 함께 법문을 듣는 모습이 마치 부처님 당시의 법회 장면을 보는 듯 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수좌 스님은 “해제한 한 스님의 법문 밖에 들을 수 없지만 여기서는 여러 선원장 스님들의 법문을 동시에 들을 수 있어 찾아왔다”며 “제가 불자의 수행에 대한 열정이 오히려 더 많은 경책이 됐다”고 말했다.

#### 요사채 머물며 일주일 법문 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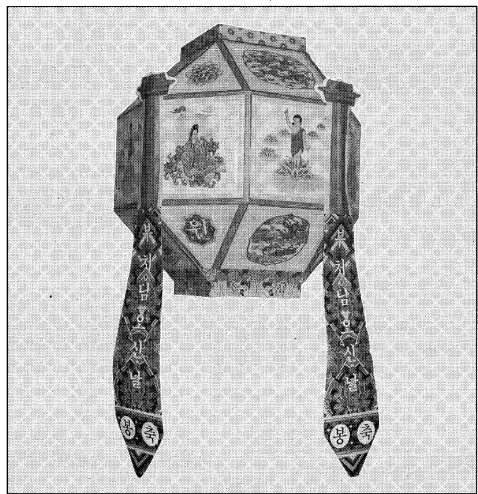
○...보문사 요사채에는 10여명의 보살들이 지방에서 올라와 숙식을 하며 일주일간 큰 스님의 법문을 듣고 함께 수행했다. 경북 울진, 대구, 충남 예산, 경기도 의정부 등에서 모인 보살들은 매일 오전 함께 기도를 함께 했고 선사의 가르침을 받았다. 법회 이후에는 모두 모여 큰 스님의 법문을 들은 소감을 나누며 참석했다.

#### 동참자 수준 높아

○...일주일간 동참한 불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2월 15일부터 조계사에서 열리고 있는 선원장 초청법회와 보문사 등 전국 사찰에서 열리는 큰 스님 초청 법회에 일일이 찾아다니는 불자들이 많다. 특히 공무원, 기업체 임원 등을 역임하고 퇴직한 인텔리 불자들이 실참 수행 중 의식이 되는 것을 법회에 동참해 큰 스님들에게 질문을 해 법회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했다.

#### 작은 사찰의 큰 힘

○...법회 동참을 위해 처음으로 보문사를 찾은 많은 불자들은 사찰 규모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일반 가옥을 개조한데다 규모도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그마한 사찰에서 어떻게 큰 야단법석을 마련했는지 모두 궁금해 했다. 그러나 보문사 주지 지법 스님과 창건주 정진 스님이 모두 선객이라는 점과 아직도 포교를 하지 않은 선원에서처럼 청규를 지키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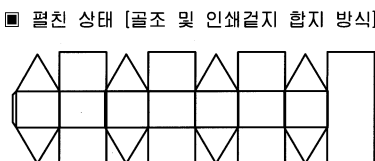
## 우리 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 동결 단행!!

어려운 사찰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국산품을 애용하시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날장으로 풀칠이 하던 등제작이 '현반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 이 3년내에 완성.
- ★ **아외장염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입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 **문반 및 보관 용이**  
'문반 및 보관이 편리' 하도록 고안.

-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 하여 불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로 인한 높은 가격을 배격하여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현우기획

전화:(043)877-6464 팩스:(043)877-8239 핸드폰: 016-552-9360

우체국 013706-01-003311 예금주:(주)국민포텍  
농협 415051-51-000057 예금주:(주)국민포텍

# 방생 및 삼사순례 안내



삼보전에 귀의 합니다.  
각 사암 대덕 큰 스님께 인사 올립니다.

본 성모암은 진묵대사님께서 탄생하신 불거촌에 효행을 실천한 사찰로서 진묵대사님 어머니의 묘소와 더불어 진묵대사님의 영정을 봉안한 도량으로 가까이에는 진묵대사께서 육신방생의 유래가 있는 100만평의 능재 저수지가 자리한 해동의 최고 방생지이며 방생과 더불어 금산사·망해사·홍복사·봉서사를 연결하는 삼사순례의 격적지입니다. 조사님의 혼이 머무는 본도량에 왕림하시어 일체 서원을 이루시길 사부대중과 더불어 발원합니다.

전주 군산 간 뱃꽃길따라 100리, 윤달 삼사순례 오십시오.

오시는 길 ○ 호남고속도로 전주 IC에서 군산방향 - 대야검문소에서 김계방면으로 10분 거리  
○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 IC, 서검제 IC에서 5분거리

종무소 ☎ (063)544-0416 (사전에 필히 전화 접수바랍니다.)  
Fax 063)542-6991 www.sungmoam.net  
점심공양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하루 일천명의 점심공양 가능(무료)

전북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 불거촌 388번지

## 성모암 대중일통